

정보화시대의 제국:

21세기 미국의 지식/네트워크 세계전략

1. 문제의 제기

가. 21세기 제국의 등장

2차 대전 이후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당시 세계정치의 변화를 응축해서 반영하는 다양한 개념들의 출몰이 관찰된다. 최근 십여 년간의 세계정치 변화를 담아내려는 시도들만을 보더라도 패권(hegemony)의 상대적 쇠퇴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구화(globalization)나 국민국가의 후퇴 또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들이 세계 국제정치학계에 등장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난 수년간 서구 국제정치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제국(empire)’도 냉전이 종식된 이후 변화하는 세계정치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대표적인 개념적 시도 중의 하나이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선불리 제국에 대항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국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수입담론의 형태를 빈 학문적 유행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좀 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사회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국으로 개념화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구조와 작동방식 및 변화의 동인(動因)을 미국의 21세기 세계전략에 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밝혀보고자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본 연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정보화(또는 정보혁명)로 인해 새로이 등장한 기술·정보·지식(이하 통칭하여 지식)이라는 변수가 21세기 제국의 형성과 작동에서 담당하는 세계정치적 역할이다.

제국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최근 세계 유일패권으로서 미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대항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크게 고조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양극적 세력배분구조에서 점차 미국 주도의 단극적 세력배분구조로 변화하여 왔다. 21세기 미국은 세계 군사비의 40% 이상을 지출하고, 세계 1위의 경제력을 가짐과 동시에, 다양한 국제제도를 이끌어 나가는 연성권력(soft power)까지도 보유한 명실 공히 패권국가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Mann 2003; Nye 2002; Wallerstein 2003). 이러한 상황에서 9.11 테러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서, 사실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미국 주도의 경제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 미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거부감, 미국 문화의 전세계적 확산에 대한 이념적 반발 등이 응집되어 나타난 상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항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은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테러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공격론’을 내세우거나, 미군 기지의 전세계적인 재배치, 동맹의 재조정, 군사전략 재정립, 더 나아가 외교관계의 변화에 이르는 일방주의적인 방식의 대응을 보여주었다(Ferguson 2004; Johnson 2004).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세계체제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패권의 역할에 대한 많은 의문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패권국가가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리더십을 행사하기보다는 자국의 강력한 힘에 기반을 두고 단지 타국을 착취하거나 지배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을 ‘제국주의’ 또는 ‘제국’으로 이해하는 논의와 연결되었던 것이다.

과연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미국이 주도하여 새롭게 형성하는 세계질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미국은 근대 국제체제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양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진 또 하나의 ‘패권’에 불과한가 아니면, 근대 국제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세계정치를 주도하는 ‘제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 미국은 근대 국민국가의 대외적 경쟁과 팽창의 연속선상에서 본 제국주의(imperialism)의 반복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치질서의 구성(a constitution of a new political order)’ 또는 ‘새로운 형태의 주권(a new form of sovereignty)’ 개념에 기반을 둔 제국의 출현을 의미하는가? 최근의 제국에 대한 논의가 기존의 제국주의 연구와 구별되어 주목을 끄는 부분은 21세기 미국의 부상은 탈영토적이고 탈중심적이며 외부의 경계를 갖지 않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등장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제국이라 함은 “자국의 힘이 축적되어 외부로 팽창할 만큼 강한 국가로서, 구조적 힘, 제도적 힘, 행위적 힘에서 타국의 주권을 능가하고, 세계의 틀을 짤 만큼 강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겠다(Hardt and Negri 2000).

이러한 의미의 제국으로서 21세기 미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는 매우 의미심장한 국제정치학적 파장을 낳을 것이다. 왜냐 하면, 역사상 우리는 이미 로마제국, 대영제국 등과 같은 많은 제국을 경험한 바 있으나 미국은 이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의미의 ‘지구적 제국’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일군의 국제정치학자들은 21세기 제국으로서 미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서구를 중심으로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온 근대 국민국가체제와 질적으로 다른 세계질서의 형성이 예고된다고 주장한다. 21세기의 세계정치는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들 간의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의 주권이 점차 약화되고, 이를 국제적 차원에서 서서히 모아 관리하는 ‘제국적 주권(imperial sovereignty)’의 체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국은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국민국가들의 주권적 권리를 제도적, 구조적으로 침해하여, 이를 관장할 수 있는 보다 조직적인 세력으로서, 지금과 같이 테러, 경제세계화, 초국가적 이념, 글로벌 문화의 영향이 막강해 질수록, 제도적·국제법적 차원에서 주권의 본질과 소재에 관한 많은 논의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하튼 제국적 질서의 출현에 관한 논의는 21세기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관찰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개념적 틀로 향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 예상된다(Howe 2002; Barber 2003).

이상에서 살펴 본 제국의 개념이 작금의 세계정치 변화를 그려내는 개념으로서 적절한가? 세계정치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의 개념들과는 달리 제국의 개념이 특별히 포착하고 있는 측면은 무엇인가? 과연 말 그대로 제국이 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패권이나 지구화 또는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개념이 더욱 적절한 것은 아닌가? 실제로 제국의 개념은 이전의 개념들이 상정하였던 것과는 다른 세계정치의 현실을 담아내고 있으며,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여 새롭게 짜고 있는 21세기 세계질서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나마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국이라는 제국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세계정치의 각 하위영역에서 제국의 작동방식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향후 제국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그 논지를 정교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21세기의 제국은 내적으로 어떠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논리에 의거하여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작동하는가? 21세기의 제국은 근대적인 의미의 '제국주의'와는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내적 논리를 가지고 성장하여 어떠한 조건에서 외적으로 발현되었는가? 21세기의 제국이 종전의 '제국적 질서'와 다른 측면이 있다면 이를 가능하게 만든 동인(動因)은 무엇인가? 근대 국민국가의 부국강병을 뒷받침한 군사력과 산업력인가, 아니면 요즘 들어 널리 회자되듯이 새로운 권력자원으로서의 지식력(knowledge power)인가? 이러한 질문에서 더 나아가, 제국의 개념을 통해서 생산·유포되는 '제국정치학적'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의 실체는 무엇이고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국의 개념은 어떠한 대항논리의 프리즘을 통해서 재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나. '지식/네트워크'¹⁾와 21세기 제국

본 연구는 21세기 제국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세계정치의 변화를 분석하는 핵심적 주제로서 최근의 정보화(또는 정보혁명)가 세계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실제로 현재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국 연구가 중대하게 '결여하고 있는 고리(missing link)'가 바로 다른 아닌 정보화로 인해서 활성화된 지식 변수의 세계정치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다. 다시 말해, 이전의 제국들과는 달리 미국이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등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구적 제국'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2차 대전이래 미국이 첨단 지식을 생산·활용·전파하는 '지식 제국(knowledge empire)'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미국의 21세기 세계전략에서 기술·정보·지식 등의 변수는 제국적 질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화시대의 지식이라는 변수가 어떠한 관계를 거쳐서 제국의 개념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느냐의 문제를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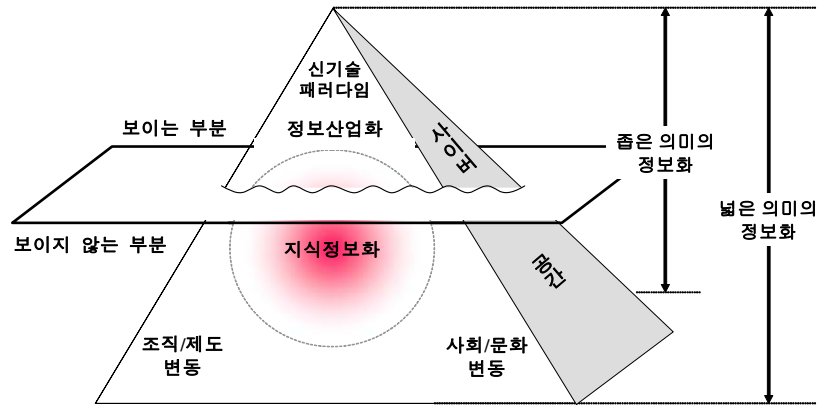
정보화시대 제국에 대한 논의를 위한 첫 걸음은 정보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란 무엇인가? 특히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21세기 제국을 논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정보화의 개념적 본질은 무엇인가? 정보화라는 용어는 학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책 슬로건적인 개념으로 고안되고 사용되어온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엄밀한 개념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은 용어 중의 하나이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시대

1)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지식/네트워크(knowledge/network)'의 개념적 연계(nexus)는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지식(power/knowledge)'에서 힌트를 얻어서 고안되었다. 푸코가 권력/지식이라는 용어에서 지식을 근대적인 의미에서 권력에 종속된 도구의 의미로서 그리고 있다면, 지식의 생산·활용·공유의 과정이 특정한 권력담지자에 의해서 통제되기보다는 네트워크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보화시대의 특징을 그려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지식/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정보화라는 용어는 정보화사회(情報化社會)라는 형태로서 1960년대 후반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정보화의 번역어인 informatization도 비영어권에서 고안된 말이기 때문에 영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영어권의 연구자들은 정보화라는 용어보다는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이나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또는 정보시대(information age)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여하튼 정보화라는 용어 또는 그에 대칭하는 표현어는 1970년대 이래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이 점차 확산되면서 일부 미래학자들의 저술을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엄밀한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어떠한 형태로건 정보화에 대한 개념화 작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보화를 1) 신기술 패러다임의 등장, 2) 탈제조업·정보산업화, 3) 정보의 디지털화 및 지식화, 4) 조직과 제도의 네트워크화, 5) 사회문화의 탈근대화 등의 다섯 가지 층위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그림1> 정보화의 개념적 구조(빙산의 비유)



IT패러다임, 정보산업화, 지식정보화 등으로서 개념화된 정보화는 좁은 의미의 정보화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정보화는 정보화의 개념적 구조를 빙산에 비유할 경우, <그림 1>에서 드러나듯이, 수면 위에 떠 있어 쉽게 보이는 일각에 불과하다. 넓은 의미에서 정보화의 개념은 기술과 경제의 논리를 넘어서는 조직·제도와 사회·문화의 영역을 포괄하는 형태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넓은 의미에서 정보화의 개념이 파악되어야만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정보화의 본체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의 개념에서 핵심은 단연코 정보의 디지털화 또는 지식정보화를 통해서 지식이라는 변수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부상하는 과정이다. 요컨대, 이들 다섯 가지 정보화의 개념적 층위에 대한 논의는 세계정치의 변화에서 다층적인 정보화 변수, 특히 지식 변수가 담당하는 구성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개념틀로서 기능한다.

우선,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지식이라는 변수는, 단순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정치의 목표로서 부상할 뿐만 아니라 이를 추구하는 세계정치 행위자, 특히 국민국가의 기능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구성적 동인’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정보혁명의 진전으로 인해 기술·정보·지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세계정치 권력의 핵심적 요소로서 등장하게 되면서 국가목표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물질적 자원으로부터 지식자원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국가인식의 변화는 세계정치에서 권력의 원천과 소재가 변화하는 ‘권력이동(power shift)’의 과정을 배경으로 하여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지식을 생산·활용·공유하는 과정이 국가업무의 중심이 되는 ‘지식국가(knowledge state)’의 성격이 기존의 ‘부강(富強)국가’를 넘어서 부상하고 있다.

통해서 널리 소개되었고, 21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학술연구서나 정책보고서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용어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지식 변수의 부상은 국민국가를 포함한 세계정치 행위자들의 존재적 형태까지도 변화시키는 '구성적 동인'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술·정보·지식의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세계정치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로 증대되면서 국가-비국가 행위자의 연결망을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국가(network state)'가 새로운 세계질서의 행위체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정보화 또는 지식이 제국에 대한 논의와 맺게 되는 인연의 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제국으로 개념화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실체는 기존의 국민국가라는 유일 행위자(unitary actor)를 넘어서는 네트워크국가의 등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21세기적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제국은 부강국가로서의 국민국가와는 달리 좀 더 복합적인 수단과 목표를 전제로 하여 작동하는 '지식/네트워크 국가'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지구적으로 작동하는 21세기의 '네트워크형 제국'은 단순한 형태의 대외적 팽창을 지향하던 19세기 '식민지국가'와도 그 존재형태나 작동방식의 면에서 매우 다르다.

물론 이 대목에서 파생되는 질문은 지식 변수가--소위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의 '자율규제적(self-regulatory) 네트워크'가 아닌--제국이라는 일종의 '비대칭적 네트워크(asymmetric network)'의 등장과 친화성을 가져야만 하느냐의 문제이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등장하는 네트워크 행위자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이 굳이 제국으로 개념화되는 형태를 띠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지식 변수가 지니는 '내재적 속성'과 제국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네트워크형 '조직/제도환경'간에서 발견되는 인과적 또는 친화성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찾아볼 것이다. 여하튼 21세기 제국 개념은 정보화로 인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지식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네트워크," 즉 '지식/네트워크(knowledge/network)'의 출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인식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21세기의 핵심적 권력메커니즘으로서 지식의 세계정치와 네트워크국가의 21세기적 발현체로서의 제국이 어떻게 결합하여 출현하는가를 개념적으로 탐구하고 구체적인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입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2. 연구의 내용

가. 연구의 구성

21세기 제국으로서의 미국의 세계전략은 지식/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세계정치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지식과 제국에 대한 탐구를 세계질서 전반에 걸쳐서 개괄적으로 펼치는 추상적인 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정치의 하위 영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사례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선 정보화시대의 제국이 활동하는 영역으로서 i) 군사, ii) 외교, iii) 경제, iv) 문화 등의 네 가지 차원을 설정하고자, 이들 영역에서 작동하는 21세기 제국의 단면을 i) 군사제국, ii) 외교제국(또는 제국외교), iii) 경제제국, iv) 문화제국 등으로 파악하며, 이후 이를 전체

적으로 종합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림2>에서 제시된 사각형의 영역이 이들 네 가지 단면에 각각 해당된다.

<그림2> 정보화시대 제국의 네 가지 차원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각 영역에서 작동하는 정보화시대 제국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반영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위의 네 영역에서 전개되어온 제국의 네 가지 차원이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식 제국’의 요소, 즉 지식/네트워크와 만나면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연구는 21세기 지식제국의 구성요소와 작동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사례들로서 각 영역 별로 다음의 네 가지 주제를 분석할 것이다: i)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의 세계전략(군사제국), ii) 디지털 이념외교(제국외교), iii) 글로벌 R&D 네트워크(경제제국), iv) 글로벌 문화산업(문화제국). <그림2>의 사각형 영역(21세기 제국의 네 가지 단면)과 중앙의 원형 영역(지식/네트워크의 등장)이 중첩되는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나. 정보화시대의 군사제국 - 군사변환의 세계전략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정보화시대 제국의 첫 번째 측면은 군사제국이다. 21세기의 군사안보질서는 정보혁명이라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유례없는 변화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혁명은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

의 영역이라고 인식되어온 군사안보 영역도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는 아니다. 정보기술은 현대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안보문제의 성격을 기존에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군사분야혁명(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혹은 군사혁신이라는 새로운 안보담론으로 귀착되고 있으며, 21세기 안보환경은 지구화, 정보혁명, 그리고 군사혁신으로 이어지는 큰 틀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1세기 군사제국의 특징은 네트워크 중심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국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단극의 순간(unipolar moment)을 맞고 있다. 미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핵전력과 재래식 군사력 양면에서 전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과거에도 여러 제국이 있었지만 현재의 미국은 어떠한 국력평가의 기준에서도 경쟁자가 없고, 유일하게 모든 국제적 쟁점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독자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2002년 국방비로 9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여 세계 군사비의 43%를 혼자 썼다. 이러한 이유로 21세기 제국 미국의 군사적 측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국제군사안보질서와 관련하여 볼 때 정보화가 미치는 영향은 궁극적으로 갈등과 안보가 사회적 관계의 함수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전환점이 될만한 신기술이 도입되면 이에 따라 그 시대 전반적인 삶의 양식과 문화가 변화하고 군사안보 분야 역시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정보화 사회의 삶의 양식이 산업사회와는 다르듯이 정보혁명이 초래하는 군사안보상의 변화는 전쟁의 양상, 즉 전쟁의 내용과 수행 방식을 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변화시키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는 정보혁명이 그 파급효과와 파장의 범위에 있어서 인류역사상 경험한 두 차례의 산업혁명과 맞먹는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Eriksson 1999). 산업사회에서는 징병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인구 규모, 영토와 병참 지원에서 통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군사력의 강약이 병사의 숫자에 크게 의존하였지만 네트워크사회에서 중요시되는 군사 자산은 보다 적은 인원으로 고도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형태를 띤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비키(Libiki 1998)는 정보화가 군사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화로 인해 군대가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는가 하는 방식의 문제 뿐 아니라 군사력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내용의 문제까지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즉, 정보혁명은 군사안보의 형식과 내용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혁명은 군사분야의 혁명인 RMA로 이어진다. RMA는 현실 군사부문에서 이를 구현하는 변화인 군 변환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21세기 제국의 군사원리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양상에 기반을 두면서 단순히 군사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동맹정책과 해외기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특징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군사력의 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21세기의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으로서 군사혁신(RMA)을 주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정찰체계와 장거리의 고정밀 타격무기를 연결·결합한 정찰-타격 복합체(reconnaissance-strike complex) 개념은 보다 광범위하게 전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의 개념으로 확대 발전된다. 즉,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정보·감시·정찰(ISR)과 정밀타격무기(PGM: precision guided

munition)를 첨단 전투지휘 자동화체계(advanced C⁴I)로 연결하면 새로운 하나의 복합체계(a new system of systems)가 탄생되고, 이들은 전투력의 승수효과(force multiplier)를 수반한다는 것이 군사혁신 개념의 핵심이다(Blaker 1997; 이상현 2003). 신 시스템 복합체계로 표현되는 이러한 군사기술 혁신의 절차는 전략목표 및 군사적 개념의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군사기술의 개발 및 추진이라는 일반적 군사력기술 발전동기 및 절차와는 반대의 판이한 프로세스에 의해 구현되고 있다. 즉 이미 목도되고 있는 산업문명으로부터 정보문명(제3의 물결)시대의 도래라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명사적 변화가 군사기술 및 나아가 군사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정보화 수준의 가속화 전망과 더불어 군사혁신 분야에 있어서도 그 속도를 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군사혁신은 미국의 경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 변환(transformation)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군 변환은 군사혁신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군 변환은 적어도 두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첨단 정보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산업사회 군사력(industrial age force)을 정보화 시대 군사력(information age force)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첨단 지휘자동화체계인 C⁴ISR, 원거리 정밀타격, 네트워크, 유연성, 파괴력 향상 등이 구현된다. 둘째는 냉전기 군사태세를 탈냉전기 군사태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탈냉전기의 새로운 위협요인인 테러, WMD 확산 등에 대처하여 미군의 군사태세를 바꾸되, 전진배치 위주의 고정된 군사력 운용에서 기동 위주로 전환하며, 그 일환으로 동맹국관계와 해외주둔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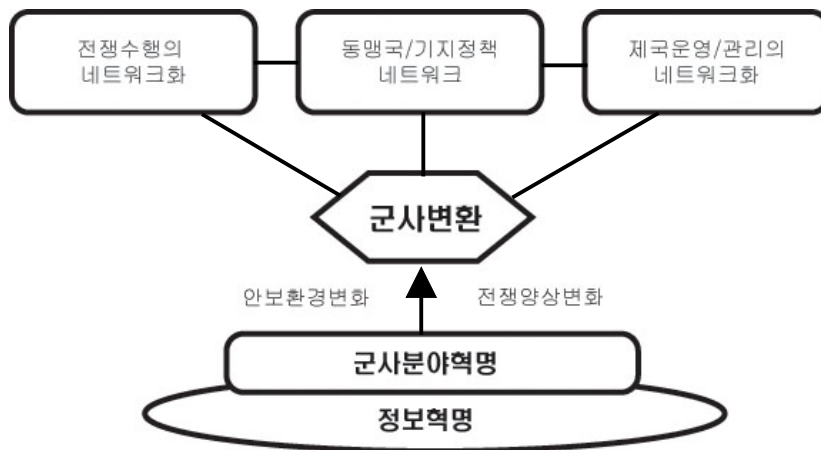
더 나아가 군변환은 미국의 글로벌 차원 방위태세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재편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미 군사력의 유형, 소재지, 역량 및 동맹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개념까지 포함된다. 군 변환 구상 하에서는 향후 미국의 군사전략 중점이 바뀌는데, 보다 다양한 불확실성에 신속 대응하고, 한곳에 고정된 군사력 배치에서 임무에 따른 순환배치를 중시하며, 숫자보다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지역적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한 관점에서 미군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앞으로는 미군이 배치된 장소에서 싸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사시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신속 파견할 수 있는 능력이 요망된다(Feith 2003) 96시간 내 세계 분쟁지역 어느 곳이라도 신속파견을 목표로 추진중인 스트라이커 여단 개편이 좋은 예이다. 그러한 군 변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논의되는 GPR이고, 그 일환으로 독일, 일본, 한국의 미군이 재조정되는 것이다.

21세기 군사안보의 특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앞으로 군사안보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군사의 네트워크화는 정보화시대에 들어서 비로소 가능해졌다. 미 랜드연구소의 아키야와 론펠트(Arquilla and Ronfeldt 2000)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전쟁수행 양상이 몇 가지 단계를 밟아 변화해왔다고 지적하는데, 그 양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전쟁 수행 단위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교환되고 소통되는 방식이다. 이들이 설정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스워밍(swarming)으로서 아직 가설적이긴 하지만 정보혁명으로 인해 비로소 가능해진 형태의 전쟁 수행방식이다. 스워밍은 다수-흔히 다섯 혹은 그 이상-의 독립적 혹은 준독립적인 전투단위들이 일정한 형태없이 분산되어 포진하다가 일단 공격목표가 정해지면 전방향에서 일제히 목표물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워밍의 전제가 되는 것은 전투 단위들간의 고도의 연결성으로서, 이는 일종의

네트워크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전채널(all-channel) 네트워크가 스위밍전술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형태이다. 스위밍은 마치 이차대전 당시 독일의 U-boat처럼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가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모든 방향에서 화력을 집중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리고 공격이 완료되면 전투 단위들은 다시 분산함으로써 적의 반격을 피한다. 스위밍은 마치 자연상태에서 벌떼나 개미, 혹은 늑대나 하이에나가 무질서한 듯이 흩어져 있다가도 일단 공격대상이 정해지면 전체가 사방에서 달려드는 것과 유사한 전투양식이다.

본 연구는 21세기 군사제국의 특성을 네트워크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우선 21세기 군사안보환경의 특성을 비대칭 위협에 중점을 두고 개관한다. 이어서 21세기 군사력의 특성을 네트워크, 군사혁신, 군 변환 등 현재 진행중인 군사력 구성·전략개념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21세기 제국의 작동양식으로서 군사부문의 네트워크 속성이 구현되는 양식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세계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21세기 한국의 군사안보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 다음 대응책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림3> 정보화시대의 군사제국: 군사변화의 세계전략



21세기 제국의 작동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미국의 군사전략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네트워크 중심의 군사안보전략이 작동되는 방식을 집중 분석하기로 한다(<그림3> 참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다음 아래의 연구주제를 심층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방향의 특징을 해부한다. 특히 탈냉전과 9.11 테러 이후의 변화양상에 초점에 맞추어 i) 군사혁신, ii) 군변환 등 주요 전략적 테마를 살펴본다.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 사례로서 96시간 내 세계 어느 곳이든지 파견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여단 개편, 디지털 보병을 지향하는 미래전투체제(Future Combat System) 등 실제 변화사례를 점검한다. 둘째, 새로운 군사전략에서 네트워크 특징이 드러나는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21세기 제국의 네트워크 전략을 분석한다. 여기에는 미군의 해외주둔정책 변화, 동맹국 정책의 변화, 대테러·반확산 연대의 구축 등 초강대국의 압도적 힘으로도 풀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군사안보전략의 네트워크화를 살펴본다.

다. 정보화시대의 제국외교 - 디지털 이념외교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정보화시대 제국의 두 번째 측면은 외교제국 또는 제국외교이다. 21세기 정보화시대 제국의 지위는 이전과는 다른 힘에 의해 유지될 것이다. 그러한 힘들 중 가장 중요한 힘, 그리고 과거에 비해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가 바로 지식과 이념이다(Bikson 2002; Nye 2002). 이는 전 세계적인 교육수준의 증가와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의 모든 인구가 정당한 세계질서를 요구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또한 세계적인 민주주의를 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더욱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정보와 지식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제정치적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패권의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세계를 이끄는 패권국은 이제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대국가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안보, 경제, 문화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다른 국가의 정치적 권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는 타국의 주권을 제도적, 구조적으로 넘나들 수 있는 형태로서,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제국이라는 용어로 귀결될 수 있다. 사실 21세기 국제정치에 있어 지구적 지도력을 갖춘 국가의 국제정치적 지위를 개념화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제국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정의하고 있는 형편이다(Howe 2002; Ferguson 2004). 그렇게 볼 때, 세계적 민주화 혹은 정당한 국제정치적 권력의 존재를 요구하는 추세와 정보화의 발전, 그리고 제국의 존립이 가능한 기술적 발전이라는 상황이 종합되어 21세기 제국들은 자국의 정치이념을 더욱 정교화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조직적인 노력을 해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세기 냉전적 대립의 시기에도 미국과 소련은 각기 자국의 정치이념을 생산하고 발전시켜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패권국 혹은 제국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은 냉전기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국제법과 국제제도에 의한 국제질서의 유지와 같은 이념을 생산하여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소련의 소위 제국주의적, 독재체제적 질서에 대항하고 많은 3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권 하에 편입되어 있도록 많은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사실 많은 성과를 거두어 3세계 국가들을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적 정체성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국제정치 영향력을 유지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또한 한계와 비판을 수반한 것으로서,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을 수행하면서도 3세계의 독재를 지지하고, 시장을 왜곡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였으며, 국제제도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는 국제제도의 규범을 스스로 위반하기도 함으로써 자국중심주의적 성향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21세기 국제정치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보건대, 이러한 제한된 지식과 이념의 영향력은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까운 예로 미국은 2003년 이라크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테러집단과의 연계, 그리고 후세인 정권 하의 독재체제를 이유로 국제법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선제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국제정치적 행위가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이념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으로 합리화되지 못한다면 결국 미국의 제국적 영향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미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테러와의 전쟁 및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의 보호,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라는 이념을 발전시켜 이를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더욱 절실해 질 것이며, 소위 연성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념외교와 지식외교의 필요성이 한층 증가될 것이다(Nye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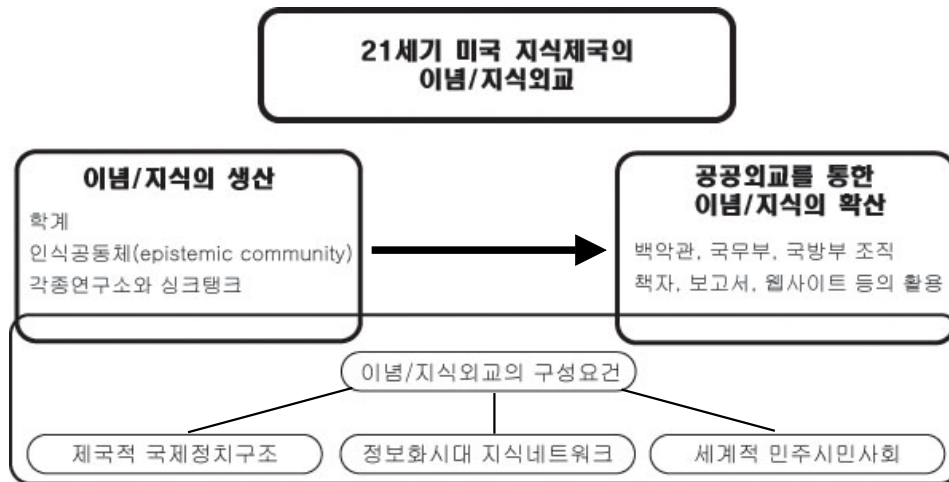
제국 혹은 패권국은 자신의 힘을 유지시키기 위해 당시의 시대상황에 걸맞는 세력기반을 갖추어야만 했고,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했을 때, 자신의 팽창하는 힘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국제관계에서 제국의 힘의 기반을 결정하는 요소들에는 많은 것이 있다. 제국 내의 정치체제의 성격, 다른 국가들의 정치체제 혹은 정치이념, 인구상황과 세계적 문맹수준, 기술력의 발전단계, 국제적 세력배분구조 등이 그러한 결정요소들이다(토드 2002). 21세기 제국이 이념/지식에 기반한 정당한 정치권력을 필요로 한다면, 이는 정보혁명이라는 또 다른 변수에 의해 그 실체, 특히 외교적 행위가 결정될 것이다. 정보혁명은 국제정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정보혁명은 군사력, 경제력, 이념, 외교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세계적 차원에서, 보다 민주적인 지구적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를 강화할지, 아니면 지식제국을 출현시켜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에 기반한 보다 차별적인 지구적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를 강화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외교 양상의 변화, 혹은 외교혁명(RDA: Revolution in Diplomatic Affairs)이라 불리우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Burt and Robinson 1998).

이제, 정보력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과 더불어 21세기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힘이 될 것이다. 정보를 생산, 수집, 처리, 전파하는 능력이 정보력이다. 외교가 기반하고 있는 힘 중의 하나가 정보력이다. 과거 외교가 군사력과 경제력에 주로 기반하여, 소위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달러외교(dollar diplomacy)가 각광받았다면, 21세기 정보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21세기 외교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정보는 또한 지식을 구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수집된 정보를 지식의 형태로 구성하여 자국의 외교의 기반으로 삼는 한편, 대내외적 설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지식외교라 할 수 있다. 외교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며, 평시에 수행된다. 그렇게 볼 때 21세기 외교의 정의는 “지식국가 혹은 지식제국의 대내외적 지식관리, 세계지식질서를 자국의 이익에 맞도록 생산, 변화하는 일(지식구조의 힘), 자신의 이익에 맞는 세계적 지식제도를 창출하는 일(지식 제도의 힘) 및 지식에 기반한 협상행위(지식행위의 힘)”라 할 수 있다(Nye 2002). 외교의 정보적 측면은 근대 외교의 출현과 더불어 항상 강조되어 왔다. 오죽하면 외교관이란, 정보수집을 위해 월급을 주고 파견된 공인된 스파이라 했겠는가? 현대의 외교는 정보의 차원을 넘어서 지식의 차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를 문제틀, 가설, 이론, 이념, 신념체계, 세계관 등으로 정리하여 이를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는 지식외교의 모습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외교가 지식을 다루게 되었다.

21세기 국제관계는 대내적으로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들이 기본이 될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인구의 감소 및 문맹률 하락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이념이 강화될 것이다. 기술은 발전하여 국제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무한대에 달하는 한편, 군사력과 경제력은 전세계를 통치할 만큼 발전하여 있다. 당분간 미국 이외에 제국을 건설할 만한 나라는 흔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계에서 미국은 자국의 지식외교를 바탕으로 제국의 힘, 특히 연성권력, 정보권력, 상징권력, 지식권력 등 권력의 이념적 차원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Brecht 2000).

<그림4> 정보화시대 제국외교로서의 디지털 이념외교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엄청난 기술의 발전과 국제정치구조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세계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초국적 시민사회의 발전이라는 세 가지 변수 속에 미국이 어떠한 이념, 지식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외교를 펼쳐가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노력은 정보화라는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즉, 21세기 미국이 정보혁명, 인터넷의 시대에 접어들어 자국의 제국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지식외교를 강화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대내외적 공공외교를 어떻게 강화하여 타국과 세계인의 지식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21세기 국제정치 속의 제국이 어떠한 이념, 지식외교를 펼쳐갈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이 될 것이다. 정보화시대 제국의 디지털 이념외교적 측면을 다루는 사례 분석의 구성을 보면 다음의 <그림4>과 같다.

본 연구는 지식제국의 유지를 위해서 어떠한 이념을 누가 생산하는가, 이념을 어떠한 방법으로 세계에 분배하는가, 그 과정에서 정보혁명으로 인한 변화로서 외교의 변화, 혹은 외교혁명(RDA: Revolution in Diplomatic Affairs)이라 불리우는 변화가 도래할 것인가 하는 점들을 다룬다. 지식제국의 이념이 확산되는 경로는 학문네트워크, 외교/선전/공공외교의 네트워크, 국제제도의 규범의 디자인, 외교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이념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이라는 지식제국의 기초를 이루는 이념들의 내용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러한 이념이 배분되는 양상을 다음의 방법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미국의 국가정책 보고서를 1차 자료로 활용하여 그 속에 표현되어 있는 이념들의 분석(내용분석과 개념분석), 미국주도의 국제기구들이 실현하고 있는 이념들, 국제정치의 지배관계와 관련된 학문분과들의 네트워크,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 학회, 씹크탱크(think-tank or know-tank)의 분석,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의 외교관 기본교육 등을 통해 이념의 생산과 전파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본격적인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행해온 국제공공외교의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로는 냉전기부터 수행되어온 심리전, 대외공공외교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공외교 및 공공업무국(Bureau of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과 미국의 공보처(US Information Agency) 등도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라. 정보화시대의 경제제국 - 글로벌 R&D 네트워크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정보화시대 제국의 세 번째 측면은 경제제국이다. 2차 세계대전직후 GDP, 무역량 등에서 세계경제총량의 절반을 독차지했을 만큼 강력했던 미국의 경제력은 IMF와 GATT를 근간으로 하는 소위 내재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적 국제경제질서의 수립과 유지에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하였다. 80년대 중반 일본과 유럽경제의 도전으로 잠시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쇠퇴론이 논의되었으나 90년대 초반이후 미국은 정보산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최첨단산업에서의 우위를 중심으로 경제제국으로서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위상은 특히 초국적 금융, 산업, 상업자본 등에 의해 주도된 세계경제의 통합 및 네트워크화, 그리고 경제의 지식화라는 맥락속에서 강화되어 왔다. 현재 세계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제약 및 바이오 산업 등의 상품 가치는 물리적 생산 비용이 아닌 아이디어나 연구개발활동과 같은 지식노동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아울러 외면적으로 경제세계화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여러 지역 혹은 여러 국가로 분산시키며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형태로 확장시켜 왔지만 이 속에서 선진국 특히 미국에 기반을 둔 금융, 산업, 상업자본들은 경제활동의 기반인 지식생산을 독점하면서 세계경제의 재구성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본 연구는 지식/네트워크를 키워드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모습을 지식창출의 한 과정과 결과인 연구개발(R&D)과 기술의 측면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세계 연구개발투자의 절반 정도가 미국정부 및 기업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미국이 막대한 투자에 기반하여 첨단 및 주요 기술에서의 공고한 우위를 유지하여 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본 연구는 특히 '초국적 생산 및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전의 관점에서 기술제국으로서의 미국의 면모를 분석한다. 즉 미국 기업들은 초국적 기업에 의해 이루어져 온 글로벌 생산 및 연구개발 네트워크에서 고부가가치 및 핵심부문을 주도하면서 기술 및 제품의 세계 표준을 설정하고 기술 및 산업발전을 이끌고 있음을 고찰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로마,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중국 등 역사상 몇몇의 제국을 경험하여 왔다. 소수의 학자들은 제국의 운영에 과학기술이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연구해 왔다(Headrick 1981; 1991; 박지향 2000). 이들은 특히 식민지 점령 및 제국 운영을 위한 무기, 의약, 교통, 통신 기술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기술은 전쟁과 정복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수단이자 제국 우월성과 지배의 객관적 증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제국의 지배를 용이하게 만들어 준 교통과 통신망의 통일 등 기술의 확산이 다시 피지배민들을 위해 쓰이게 됨으로써 제국의 몰락을 촉진하는 아이러니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국과 과학기술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영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것이 미국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일군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제국의 운영방식

이나 제국적 권력의 내용면에 있어서 미국이 역사상 존재했던 다른 제국과 매우 다름을 시사하여 왔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 기반하여 미국이 다른 제국과 공유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이 기술을 물리적 수단 및 제국 우월성과 지배의 증표로 활용하여 왔는지, 그 방식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미국 과학기술정책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략과 미국 세계전략과의 상관성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21세기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의 네트워크화 및 지식화 추세속에서 지식창출의 한 과정인 연구개발활동 자체에 대한 분석이 경제제국 연구의 주요한 측면으로 등장하고 있다. 21세기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산업,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에서는 물론 자동차, 섬유 등 전통산업에서도 연구개발이 부가가치창출의 핵심부분으로 부상하여 왔다. 연구개발활동과 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경제제국의 이해에 관건임을 주장하면서 본 연구는 미국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 초국적 연구개발 및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과 작동을 일반적인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 수준에서 그리고 동시에 구체적으로 정보산업의 사례를 통해 고찰한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이 구축한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연구개발 네트워크 안에서 미국 기업 및 정부의 전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미국이 구축한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미국의 주도하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세계정치질서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세부연구주제로 구성될 것이다.

우선 미국의 전후 세계전략에서 과학기술/R&D의 위상을 확인해 본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은 국가가 펼치는 세계전략의 목적이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국가는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목적) 다양한 외교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특정한 외교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기술우위(technological leadership)가 미국대외정책의 주요 목적이었는지 즉, 기술적 우위가 군사 및 경제적 자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는지, 혹은 미국 세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 경제적 우위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는지 살펴본다. 즉 과학기술이 전후 미국 세계전략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관련 주요 문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또한 전후 미국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외교의 전개를 살펴 볼 것이다. 미국은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과학기술관련 조직의 재편 및 다양한 기술 및 R&D 정책을 펼쳤다. 시기별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기조 및 과학기술관련 행정조직의 변화를 이차대전이후 국방 및 민간 R&D를 포괄하는 미국 국가혁신체제의 재편 및 강화라는 틀에서 정리해 본다. 아울러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핵을 비롯한 전략기술 및 첨단기술의 우위 및 확산 저지, 민간 분야 첨단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 강화...등으로 전개되었다. 이를 크게 기술외교로 포괄해서 개괄해 본다.

미국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기존연구들에 의하면 미국과학기술정책의 기조가 2차 대전 직후에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임무수행위주(mission-oriented)였고 주로 연방정부의 지원 하에 국립연구소들이 군사적 목적을 위한 기술개발에 치중하는 한편 후에 이를 상업적 용도로 전환하는 spin-off 정책이 중심이 되었다(Branscomb 1992; Branscomb and Keller 1998; Smith 1990; Mowery 1992). 그러나 80년대 EU, 일본 등의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전자, 자동차 등 전통적으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누리던 첨단

기술산업분야에서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감소됨에 따라 미국 과학기술정책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지원하고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기술확산(diffusion-oriented)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최근 정보혁명으로 기술 및 지식의 경제적 가치가 보다 강조되면서 미국은 국내 기술개발주체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연구개발인력의 수요와 공급 조정, 연구개발결과의 상업화 등의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과학기술정책의 대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나아가 이것이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가지는 의미 등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 미국정부가 기술력의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과학기술외교를 어떻게 전개하여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기업의 글로벌 생산/연구개발 네트워크의 전개를 살펴보는 것이다. 위에서 개괄된 전후 미국 세계전략에서 과학기술/R&D의 위상, 미국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외교 등과 같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간기업차원의 글로벌 R&D 네트워크 형성과정, 네트워크의 특징, 이의 결과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의 기업들이 주요 산업의 생산 및 연구개발 네트워크 안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에 대한 과점적 구조를 강화하면서 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을 주도하여 왔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지듯 미국은 세계 연구개발투자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형성과 그 구조,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 결과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본다. 아울러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부문의 주요 기업들을 사례로 이들이 세계 연구개발네트워크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지식 및 기술우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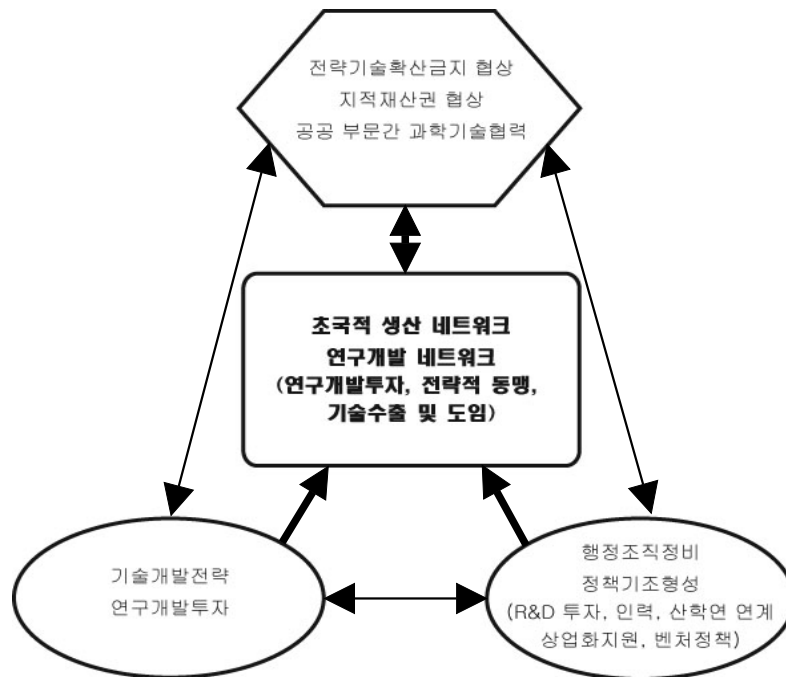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지식 및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연구개발활동은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부각되어 왔고 이에 따라 개별 기업 및 각 국가의 연구개발투자가 강화되어 왔다. 미국 기업이 주도하는 초국적 생산네트워크에 대해 이미 부분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정보산업을 위시한 첨단산업에서 가치창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되는 연구개발활동을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미국의 기업들이 주요 산업의 생산 및 연구개발 네트워크 안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에 대한 과점적 구조를 강화하면서 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을 주도하는 모습을 분석한다.

학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군의 국제정치경제 학자들은 세계경제의 통합과 산업발전의 세계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초국적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형성된 초국적 생산망(transnational production networks)이 산업 및 기술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Borras 1994; Henderson 1989; Bernard and Ravenhill 1995; Ernst 1994; Gereffi 1996). 특히 정보혁명으로 인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감소에 따라 선진국 기업들이 보다 핵심적이고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부문을 제외한 여타 부문을 적극적으로 아웃소싱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기술수준을 가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초국적 생산 네트워크가 보다 일반적인 생산방법으로 자리 잡아 오고 있다. 개도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거나 안정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 진입하고 그 안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이 산업 및 기술발전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이들은 특정산업에서 각기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수직적인지 수평적인지 혹은 일본 기업이 주도하는지 미국기업이 주도하는지에 따라 산업의 거버넌스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선진국의 기술지배양상과 기술확산 형태,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술개발 기회와 한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주요 주제를 아래 표를 통해 다시 정리해 보면 하단 오른편의 기업의 초국적 생산네트워크 분석이 본 연구의 초점이며 이를 위한 배경지식으로 대내 과학기술정책 및 미국의 기술외교를 개괄할 것이다. 즉 전후 미국 세계전략에서 기술이 어떤 의미를 지녔으며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개괄한 후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초국적 연구개발네트워크가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짜여져 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림5> 정보화시대의 경제제국 메커니즘으로서의 글로벌 R&D 네트워크



위에서 언급된 세부주제의 연구를 위해 주로 문헌 검토와 사례조사 방법이 활용될 것이다. 미국 세계전략에서 과학기술이 가지는 의미, 미국 대내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외교를 개괄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정책관련 주요 기관에서 발행된 문건들을 분석할 것이다. 즉 미국 기술정책 주요 관련기관인 백악관 내 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의 주요문건, 대통령과학기술 자문기구(PCAST, President Committee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의 주요 문건(예컨대 *Technology in National Interest, Unlocking Our Future: Toward a New National Science Policy*), DoC 내 TA(Technology Administration)의 주요 문건들 *Global Context for US Technology Policy, Globalizing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Transcript of U.S. Department of Commerce Innovation in America* 국회내 OTA (Office of Technology

Assesment, 1996년 이전 아카이브 조사), CRS Report등을 검토하여 미국 과학기술정책기조, 현황, 주요 이슈, 외교 등을 정리한다. 이와 아울러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통계를 제공하는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등의 데이터와 산업 및 기업 통계 자료를 기초로 미국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과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마. 정보화시대의 문화제국 - 글로벌 문화산업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정보화시대 제국의 마지막 네 번째 측면은 문화제국이다. 특히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상징적 지식 또는 문화적 지식을 생산하여 확산시키는 과정의 세계정치가 최근 정보화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를 겪으면서 문화제국(cultural empire)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종전의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로서 개념화되던 문화국제정치의 양상이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21세기에 이르러 질적으로 다른 문화제국의 국면에 접어들었는가? 정보화로 인하여 상징적/문화적 지식의 생산·전파·공유와 관련된 근대적 양식의 변형과정이 관찰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은 문화영역에서 어떠한 지식/네트워크의 전략을 쓰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21세기 제국으로서의 미국의 문화세계전략에서 IT 또는 지식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문화제국의 현상 중에서도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 또는 영화산업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징적 지식의 생산, 전파, 공유를 둘러싼 국제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문화제국주의(Tomlinson 1991 등)나 할리우드(Miller et. al. 2001, Hozic 2001, Der Derian 20002 등)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가 소홀히 다루었던 영역으로서 최근 IT분야의 기술적 성과가 문화산업에 적용되면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제국(empire)의 메커니즘 또는 글로벌 문화(global culture)의 세계정치의 부상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을 탐구할 것이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보화시대의 문화패권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가? 이러한 미국의 문화패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문화제국인가? 글로벌문화의 확산인가? 문화 거버넌스 아니면 문화 네트워크의 등장인가? 문화제국으로서 미국의 패권 창출을 뒷받침하는 미국 국내체제적 요인은 무엇인가? 소위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미국형 지식국가(knowledge state)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문화패권을 재강화하였는가? 더 나아가 이렇게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구조에 대응하는 전략은 어떠한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는 세계 문화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그 핵심에 굳건히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화시대 미국의 문화산업 패권을 표현하는 용어 중의 하나로 '실리우드(Silivood)'라는 말이 있다.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와 할리우드(Hollywood)를 합성해서 만든 말이다. 지난 반 세기동안 세계 영화산업의 종주로 군림해왔던 할리우드의 스튜디오들이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실리콘밸리의 IT기업들과 제휴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실리우드의 등장은 문화산업계의 주도권 변화를 반영한다. IT가 문화산업의 영역에 활발하게 도입되면서 아날로그형 할리우드의 시대가 가고 디지털형 실리우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리우드의 현상은 영화제작에 컴퓨터 그래픽스와 같은 특수효과가 도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실리우드 현상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영화제작 과정에 컴퓨터에 의한 영상과 음향의 처리를 도입하는 디지털 영화의 제작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한 특수한 시각효과나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지금 제작되는 영화는 거의 모두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컴퓨터 그래픽스로 처리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물리적 또는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실제 촬영할 수 없는 장면이라도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하면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지 촬영에 못지않은 생생한 장면을 관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실리우드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것이어서 국내외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 중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개발된 첨단 IT의 특수효과를 사용하지 않는 영화가 없을 지경이다. IT 특수효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영화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흥행에 성공한 ‘토이 스토리,’ ‘쥬라기 공원,’ ‘슈렉,’ ‘매트릭스’ 등의 영화가 모두 이러한 IT 특수효과를 사용한 사례들이다.

이렇게 기술지식과 문화콘텐츠가 만나는 실리우드가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이라는 토양에서 잉태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네트워크에 있다. 일차적으로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과 할리우드 영화제작 스튜디오간의 네트워크에서 출발하여 실리우드가 전세계적으로 수립한 글로벌 하청 네트워크가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실리우드의 등장은 대형스튜디오와 대량생산으로 대변되는 1950년대까지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수직적 구조’로부터 현지 촬영과 분산생산으로 특징지어지는, 2차대전 이후의 ‘수평적 구조’로의 이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소위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의 과정에서 IT는 할리우드의 네트워크화를 가속화시키는 구성적 요소로서 작동하였다. 또한 실리우드의 등장과정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상의 산업구조 변동과정을 뒷받침했던 미국에서의 국가의 역할이다. 1990년대 실리우드의 형성을 보면, IT분야의 R&D에 투자되었던 미 국방성의 막대한 방위예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군산복합체(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와 영화산업의 제휴가 발견된다. 실리우드의 이면에는 소위 ‘MIME 네트워크 (The Military-Industrial-Media-Entertainment Network)’라고 하는 미국의 독특한 기술지식의 생산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실리우드가 지구상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미국에서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문화 인자들을 네트워크로 엮어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토양이 지식생산을 매개하는 미국의 문화적 제도에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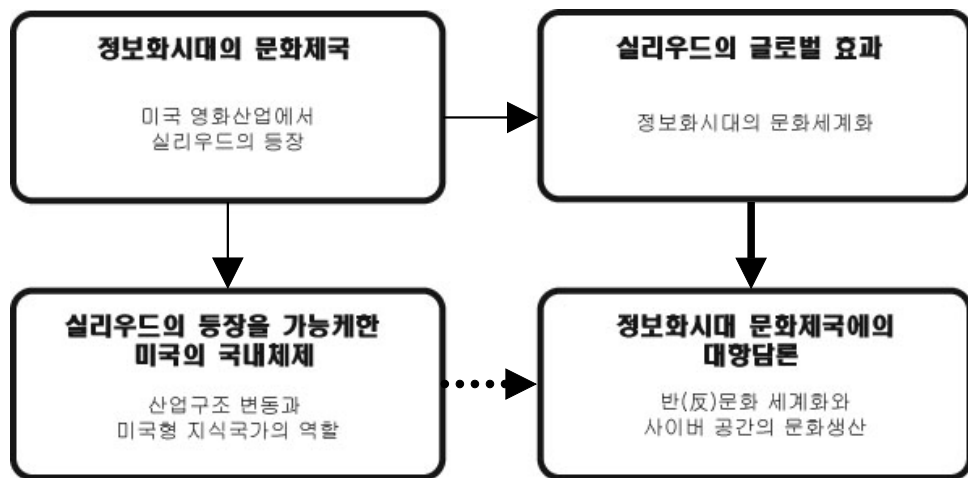
이러한 실리우드의 등장은 기술의 우위가 문화의 지배로 전환되는 정보화시대 세계지식구조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다시 말해 실리콘밸리의 지원을 받은 할리우드는 종래에 행사해온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메커니즘을 정교화시키면서 미국의 세계 문화패권을 재생산하고 있다. 물론 할리우드의 영화를 통해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패권을 정당화하고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의 자본축적 과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가 전파된다는 주장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등장한 조지 루카스(George Lucas)의 유명한 영화, ‘스타워즈’ 삼부작이 냉전이라고 하는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악의 제국’과 대결하는 ‘선의 제국’의 이미지를 영상으로 표출하였다면, 실리우드의 현상을 바탕으로 1999년에 제작·개봉된 ‘스타워즈: 에피소드 I’은 탈냉전 시대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위협하는 일본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다

를 뿐이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IT 특수효과로 포장된 실리우드의 생산물들은 한 때 쇠퇴하는 것으로 보이던 미국의 세계패권을 더욱 더 교묘한 형태로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의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실리우드의 생산물에 담기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문화(global culture)’라기보다는 코카콜라, 맥도널드, 디즈니, 스타벅스 등으로 흔히 상징되는 미국의 대중문화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글로벌 미디어의 세계화에 힘입어 등장한 소위 ‘맥월드(McWorld)’에서 유통되는 지배적인 논리는 미국적인 가치와 문화규범에 맞추어 세계 각 지역의 문화를 재구성하려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s)’의 확산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보문화 분야 글로벌 스탠더드의 실체가 ‘아메리칸 스탠더드(American standards)’라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정보문화의 영역에서 스탠더드를 설정하고 전파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문화수입국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문화수출국의 의도에 맞추어 변형되는 세계정치의 현상이 실리우드의 전파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기술·정보·지식이 가지는 다층적 권력으로서의 함의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미국 주도의 문화세계화에 대한 반(反)세계화운동의 진영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의를 제기한다. 유럽영화제의 반(反)할리우드적인 수상작 선정의 관행이나 한국에서의 스크린쿼터 수호운동 등의 사례는 거대한 자본의 힘을 등에 업고 ‘문화제국주의의 황포’를 자행하는 실리우드에 대한 저항의 양식이다. 그러나 실제현실을 돌아보면, 이러한 ‘지하드(Jihad)’적인 대응이 그리 쉽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스크린쿼터는 한국 영화산업의 숨을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의 방패막이 노릇은 할지언정 급속히 부상하는 새로운 정보문화의 생산과 전파의 양식으로서의 실리우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일 수는 없다.

<그림6> 정보화시대의 문화제국 - 실리우드의 세계정치



이러한 맥락에서 현실공간의 문화패권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보문화 네트워크의 맹아가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출현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실리우드의 생산품이 아무

리 거대한 자본과 우수한 기술로 포장되고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고 확산되더라도 그 출발은 정보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위계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실리우드가 보여주는 네트워크는 지식과 문화의 생산을 담당하는 중심(center) 또는 허브(hub)를 상징하는 ‘허브형 네트워크(hub network)’이다. 물론 이러한 실리우드적 문화생산이 우리의 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공간의 문화생산과 소비의 행태는 허브형 네트워크보다도 더 복잡한 형태를 띠는 ‘전방위형 네트워크(all-channel network)’의 등장을 예견케 한다.

실제로 최근의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생산과 소비의 형태는 오프라인의 한계를 넘어서 온라인에서 복합적인 모습을 띠면서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사이버공간에서 제공되는 뮤직비디오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감상하고 그 밖의 무선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신세대들은 위계적 네트워크에서의 일방적 소비자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쌍방향적인 ‘생산적 소비자(prosumer)’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문화의 네트워크는 실제현실과 가상현실을 넘나드는 신세대의 감수성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급속히 등장하는 네트워크형 문화생산양식이 주는 세계정치적 의미는 이것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대항담론을 형성할 가능성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사이버공간에서 생산되고 활용되는 디지털 콘텐츠나 온라인게임 등은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지 않고도 작동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고 있다. 사이버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담기는 내용도, 007 제임스 본드나 람보가 등장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하고 테러리스트를 물리치는 스토리가 아니라 사이버 판(版) 헤즈볼라와 알 카에다가 등장하여 제국에 대항하는 스토리로 채워지곤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6>과 같다. 정보화시대의 문화제국으로의 미국의 지식/네트워크 전략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실증분석과 사례연구의 병행할 것이다. 우선, 세계문화지식질서의 실증적 파악을 위해서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의 양과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밀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예를 들어 통계자료상으로 나타난 영화배포망 등을 통해 본 세계문화지식질서의 실증적 측면을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급측면의 세계문화지식질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측면에서 체감하는 실리우드의 연성권력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보충할 것이다.

3. 학문·사회발전에의 기여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세계정치의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한국은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물류, 금융, IT의 허브화를 지향하는 신정부의 국가적 전략이 여러 측면에서의 비판 및 무관심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심분 고려하여 제국과 지식/네트워크화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합당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밑바탕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대외적인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특히 오랫동안 한국의 동맹국이었던 21세기 제국으로서의 미국의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전통적인 국제정치이론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탈국가적, 탈집중적 현상들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이론틀을 시도하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현실주의 이론이나 자유주의 이론, 심지어 이러한 주류 이론들을 비판해온 구성주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국가 중심의 시각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국가의 영토적 경계선이 무너져내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한 설명만을 반복해왔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제국과 지식/네트워크의 이론은 이러한 결핍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새로운 실험으로서, 학제적이고 통합적인 이론의 공유라는 관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의 군사적, 외교적, 이념적,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테러와 이라크사태, 그리고 점차 강화되고 있는 반세계화의 도전 속에서 미국의 제국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투자와 동시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많은 이념과 지식을 생산해 내고 있다. 또한 그러한 이념과 지식에 기반하여 안보, 경제, 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외교적 전략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향후 미국외교정책의 경제적, 문화적, 이념적, 지식적 기반을 연구해 놓는다면, 미국의 세계전략 전반에 흐르고 있는 정책적 기초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기술이 21세기 군사, 외교, 산업, 문화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군사기술의 변화, 경제관련 기술의 변화, 문화적 현상의 변화, 외교적 변화를 어떻게, 어느 정도 야기하는지 쉽게 인지할 수 있으나, 이들 각 영역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세계정치의 변화를 어떻게, 어느 정도 야기하는지는 알기 쉽지 않다. 게다가 미국의 제국외교는 인터넷 공간의 적극 활용, 더 나아가 심리적 공간의 활용 등을 통해 외교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 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제국외교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정보화 속에서 외교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보화시대 한국의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문제에 대한 정보의 수집, 한국관련 문제에 대한 미래전략에서 아직 많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 정보화시대 미국 제국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함으로써, 정보와 지식의 수집 및 생산, 지식에 기반한 해결의 틀 마련, 더 나아가 한국 중심의 해결책과 이념, 지식을 정보화기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파시키는 전략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1. 권태영. 2001. “21세기 군사혁신과 한국군의 발전방향.” 『동북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우리군의 발전방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학술총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 길정일. 2000. “정보화시대의 국가안보: 분석의 틀과 연구방향.” 『국가전략』 제6권 4호.
3. 남길현. 2000. “국방전산망의 정보보호체계 구축방안.” 『정보화시대의 국방관리방안』.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4. 노훈·이상현. 2001. 『세계적 군사혁신 추진 동향과 미래전 양상』. 국방부 2001년도 국방비관련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국방부.
5. 다키야마 스스무 저·곽해선 역. 2000. 『할리우드 거대미디어의 세계전략』. 서울: 중심.
6. 박지향. 2000.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 서울대출판부.
7. 양종희 외. 2004. 『미국의 문화산업체계』. 서울: 지식마당.
8. 엠마누엘 토드 저·주경철 역. 2003. 『제국의 몰락』. 서울: 까치.
9. 이상현. 2001. 『정보화사회의 국가안보: 안보개념의 변화와 대응』. 성남: 세종연구소.
10. 이상현. 2001. “동북아 국가의 군사현대화·군사전략 변화 평가 및 대책.”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편. 『안보정책논총(II)』.
11. 이와부치 고이치 저·히라타 유키에·전오경 역. 2004.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서울: 또 하나의 문화.
12. 조한혜정 외. 2003.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3. 최영식. 2000. “새천년 정보지식시대를 위한 미국 국무부의 과학기술 외교정책.” 『과학기술정책』 10집 6호.
14. 피터 바트 저·김경식 역. 2001. 『할리우드의 영화전략』. 서울: 을유문화사.
15. 한창완. 2001. 『저패니메이션과 디즈니메이션의 영상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16. 황상민. 2004. 『대한민국 사이버 신인류: 페인, 그들이 세상을 바꾼다』. 서울: 21세기 북스.
17. Abramson, M. A. 2001. *Toward a 21st Century Public Service*. Arlington: The Pricewaterhouse Coopers Endowment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
18. Arquilla, John and David Ronfeldt. 2000. *Swarming and the Future of Conflict*. Santa Monica, CA: RAND.
19. Aspin, Les. 1993. "Report on the Bottom-Up Review." <http://www.fas.org/man/docs/bur/index.html> (검색일 2001. 4. 24).
20. Barber, Benjamin R. 1995. *Jihad vs. McWorld*. New York: Times Books.
21. _____. 2003. *Fear's Empire*. New York: Norton & Company.
22. Beck, Andrew, ed. 2003. *Cultural Work: Understanding the Cultural Industr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3. Binnendijk, Hans, ed. 2002. *Transforming America's Military*.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4. Bikson, T. K., G. Treverton, J. Moini and G. Lindstrom. 2002. *New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Leadership: Lessons from Organizations with Global Missions. Santa Monica: RAND.

25. Black, S., A. Morrison and H. Gregersen. 1999. *Global Explorers*. New York: Routledge.
26. Black, S., H. Gregersen. 2000. "High Impact Training: Forging Leaders for the Global Frontier." *Human Resource Management*.
27. Blaker, James R. 1997. "Understanding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 Guide to America's 21st Century Defense."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Defense Working Paper* No. 3. <http://www.ppionline.org/documents/ACFOPAxXa48N.pdf> (검색일 2001년 4월 23일)
28. Brecht, R. 2000. *Language, National Security, and the Academic Sector: Recommendations for Federal Action*. National Foreign Language Center. 3: 7.
29. Burbano, F., et al. 2000.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ic Plan FY2001-FY2005*. Washington DC: Department of State.
30. Burt, R., O. Robinson. 1998. *Reinventing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31. Bush, Vannevar. 1945. "Science: The Endless Frontier." U.S.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Report to the President on a Program for Postwar Scientific Research*.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32. Carlucci, et. al. 2001. *State Department Reform*.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45.
33. Chetkovich, C. 2001. *Winning the Best and Brightest: Increasing the Attraction of Public Service*. Arlington: The PricewaterhouseCoopers Endowment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
34. Cohen, Eliot A. 1996. "A Revolution in Warfare." *Foreign Affairs* Vol. 75, No 2.
35. Cohen, William S. 1997.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http://www.defenselink.mil/pubs/qdr> (검색일 2001년 4월 16일).
36. COSEPUP (Committee on Science, Engineering, and Public Policy). 1993. "Science, Technology, and the Federal Government: National Goals for a New Era."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37. Cowen, Tyler. 2002. *Creative Destruction: How Globalization is Changing the World's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38. Crane, Diana, et al. eds. 2002. *Global Culture: Media, Arts, Policy, and Globalization*. New York: Routledge.
39. CSIS Advisory Panel on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Olin Robison and Barry Fulton. 1998. *Reinventing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A Report of the Csis Advisory Panel on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Csis Panel Reports)*. CSIS Press.
40. D. Mowery. 1992. "The US National Innovation System: Origins and Prospects for Change." *Research Policy* No.21.
41. Deibert, Ronald J. 1997.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Communication and*

- World Order Transform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13–201.
42. Demchak, Chris C. 2000. "The RMA in Developing States: Dilemmas of Image, Operations, and Democracy." *National Security Studies Quarterly*. Georgetown University.
 43. Desai, N. 2001. "Redirecting Globalization for Benefit of the Masses." *Earth Times New*.
 44. Dieter Ernst. 1994. "Carriers of Regionalism: The East Asian Production Networks of Japanese Electronics Firms." *BRIE Working Paper 73*.
 45. Edwards, Sean J. 2000. *Swarming on the Battlefield: Past, Present and Future*. Santa Monica, CA: RAND.
 46. Efron, S. 2002. America's Got an Image Problem, Panel Warns. *Los Angeles Times*. Los Angeles: A9.
 47. Eriksson, Anders E. 1999. "Information Warfare: Hype or Reality?" *The Nonproliferation Review* <http://cns.miis.edu/pubs/npr/pdfs/eriksn63.pdf>. (검색일 2001년 9월 17일)
 48. Ferguson, Niall. 2002. *Empire*. New York: Basic Books.
 49. _____. 2004. *Colossus: The Price of America's Empire*. New York: Penguin Press.
 50. Gary Gereffi. 1996. "Commodity Chains and Regional Division of Labor in East Asia." *Journal of Asian Business* 12(1).
 51. Gillam, Mary M. 1997. "Information Warfare: Combating the Threat in the 21st Century." Air Command and Staff College Research Paper. <http://www.fas.org/irp/threat/cyber/97-0603C.pdf> (검색일 2001년 7월 15일).
 52. Grange, David L. 2000. "Asymmetric Warfare: Old Method, New Concern," *National Strategy Forum*, Vol. 10, No. 2. <http://www.nationalstrategy.com/nsr/v10n2Winter00/100202.htm> (검색일 2001년 9월 17일).
 53. Grossman, M. 2000. "Recruiting for the 21st Century." *State Magazine*. State Department. http://www.state.gov/www/publications/statemag/statemag_nov2000/index.html (검색일 2001년 9월 17일)
 54. H. Etzkowitz. 1994. "Technology centers and industrial policy : the emergence of the interventionist state in the USA." *Science & public policy* vol.21 no.2.
 55. Hackman, R. 2002. *Leading Teams: Setting the Stage for Great Performances*.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56. Hardt, Michael, Antonio Negri. 2000. *Empi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57. Headrick, Daniel R. 1981. *The Tools of Empire: Technology and Imperialism in the 19th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8. _____. 1991. *The Invisible Weapon: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s 1851-19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9. Henderson, Jeffrey. 1989. *The Globalization of High Technology Production: Society, Space and Semiconductors in the Restructuring of the Modern World*.

New York: Routledge.

60. Herbert, Lernes J. 2002. "Transformation DoD Capabilities: A Matrix Approach." National Defense University, National War College. (Seminar Paper) <http://www.ndu.edu/NWC/writing/AY03/5605/5605%20Best%20Paper--Seminar%20E.pdf> (검색일: 2004년 5월 7일)
61. Howe, Stephen. 2002. *Empi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62. Hozic, Aida A. 1999. "Uncle Sam goes to Siliwood: Of Landscapes, Spielberg and Hegemon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6(3), 289-312.
63. _____. 2001. *Hollyworld: Space, Power, and Fantasy in the American Econom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64. IISS. 2000. *The Military Balance 2000-2001*.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65. Johnson, Chalmers. 2004. *Sorrows of Empire*. New York: Metropolitan Press.
66. Kaden, L., et al. 1999. *America's Overseas Presence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Overseas Presence Advisory Panel.
67. Keohane, Robert O., Joseph S. Nye, 1998. "Power and Interdependence in the Information Age." *Foreign Affairs* 77(5).
68. Khalilzad, Zalmay, et al. 2001.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Santa Monica: RAND.
69. L. Branscomb. 1992. *Empowering technology : implementing a U.S. strategy*. MIT press.
70. _____. 1992. "In question : Does america need a technology policy?" *Harvard business review* vol.70 no.3.
71. Lennon, Alexander. 2003. *The Battle for Hearts and Minds: Using Soft Powers to Undermine Terrorist Networks (Washington Quarterly Reader)*. Cambridge: MIT University Press.
72. Lewis M. Branscomb, James H. Keller. 1998. *Investing in innovation : creating a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y that works*. Cambridge: MIT University Press.
73. Libicki, Martin C. 1998. "Information War, Information Peac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1(2).
74. Lindstrom, G., T. Bikson, et al. 2002. *Developing America's Leaders for a Globalized Environment: Lessons Across Public and Private Sectors*. Santa Monica, CA: RAND.
75. Manheim, Jarol. 1994. *Strategic Public Diplomacy and American Foreign Policy the Evolution of Influence: The Evolution of Influ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76. Mann, Michael. 2003. *Incoherent Empire*. London: Verso.
77. Metz, Steven, Douglas V. Johnson, II. 2001.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Definition, Background, and Strategic Concepts*. Carlisle Barracks: U.S. Army War College.
78. Michael Borrus. 1994. "Left for Dead: Asian Production Networks and the

- Revival of US Electronics." Eileen Doherty, ed. *Japanese Investment in Asia: International Production Strategies in a Rapidly Changing World*. San Francisco, CA: The Asia Foundation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s BRIE, Berkeley Roundtable International Economy.
79. Michael Borrus, Dieter Ernst and Stephen Haggard. 2000.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n Asia: Rivalry or Riches*. New York: Routledge.
 80. Miller, Toby et al. 2001. *Global Hollywood*.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81. Mitchell Bernard, John Ravenhill. 1995. "Beyond Product Cycle and Flying Geese: Regionalization, Hierarchy,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East Asia." *World Politics* 47(2), 171-209.
 82. Nye, Joseph S. 2002.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Why the World's Only Superpower Can't Go It Alo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83. _____.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Press.
 84. Nye, Joseph S., William A. Owens. 1996. "America's Information Edge." *Foreign Affairs* 75(2).
 85. R. Nelson. 1990. "US Technological Leadership: Where did it come from and where did it go." *research policy*.
 86. Resnick, Mitchell. 1994. *Turtles, Termites, and Traffic Jams: Explorations in Massively Parallel Microworlds*. Cambridge: The MIT Press.
 87. Richter, Andrew. 1999.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nd Its Impact on Canada: The Challenge and the Consequenc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Working Paper No. 28 (March 1999).
 88. Rose Marie Ham. 1995. "The Enduring Dilemmas of U.S. technology polic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37(4).
 89. Smith, Bruce L. R. 1990. *American Science Policy since World War II*.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90. The White House. 1999.,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http://www.dtic.mil/doctrine/jel/other_pubs/nssr99.pdf, (검색일 2001년 4월 24일).
 91. Toffler, Alvin, Heidi Toffler. 1993. *War and Anti-War: Survival at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92. Tomlinson, John. 1991. *Cultural Imperi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Baltimore,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93. Tuch, Hans. 1990.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U.S. Public Diplomacy Overseas*. St. Martin's Press.
 94. U.S. JCS. 2000. *Joint Vision 2020*. Washington, DC.: USGOP.
 95. Wallerstein, Immanuel. 2003. *The Decline of American Power*. New York: The New Press.
 96. Wasko, Janet. 1995. *Hollywood in the Information Age: Beyond the Silver Scree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